

中 쓰촨성 강진

“진앙지 주변 여진 1~2개월 지속”

“크고 작은 여진 2천여차례 이미 발생”...中 지진센터 경고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14일까지 2천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중국의 지진 전문가는 앞으로 한두달동안 여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지진센터 쑨소홍 수석예보원은 “지질학적인 특징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 두달간 진앙지 주변에서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여진은 진앙에서 120~130km 이내의 서북쪽 방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쑨 예보원은 “1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원환 지역에서 규모 4.0 이상 여진이 39차례 발생했고 최대규모는 6.1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12일 대지진 이후 다음 날 청두에서 6.1의 강한 여진이 발생

하는 등 원환 지역을 포함해 2천여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그는 “이번 지진으로 강 하류의 단층을 형성하고 있는 각종 모래와 진흙이 유실되면서 생태계를 급격하게 파괴해 추가적인 재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날 중국 정부는 사상자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지진의 5가지

특징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지진은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과 함께 ▲역사적으로 지진 다발 지역이었고 ▲진앙지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낮에 발생해 학교·병원 등의 피해가 컸고 ▲해발 1천325m에 위치해 지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어서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구호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청두 주민 400만명 폭우속 노숙

대지진 발생 사흘째를 맞은 중국 쓰촨성의 성도 청두는 불만에 휩싸여 있었다. 지진 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지진이 났던 12일에 이어 13일에도 400만명이 넘는 청두 시민은 집 안보다는 노숙을 택했다.

13일부터 곳은 비까지 뿌렸는데도 이들은 집안에서 간단한 식기만 챙겨 들고 거리로 나와 천막을 치고 난민이 됐다. 여진에 따른 가옥 붕괴를 걱정한 탓이다.

청두 시민들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건물 입주와 대피를 하루에도 수십차례 거듭하는 고초를 겪고 있다. 시내의 주요 공원은 가옥을 탈출한 시민들이 ‘점령’했다. 도시 곳곳은 쓰레기장으로 바뀌고 있었다. 일부 지역의 슈퍼마켓에서는 생필품이 거의 바닥났다. 생수가 동나자 시민들은 탄산음료를 사 마셨다. 상당수 주유소가 문을 닫아 자동차에 주유하려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한다.

학교와 사무실 거의가 문을 닫아 활기했던 도시 전체가 침묵과 비탄에 잠겼다. 무너져내린 건물더미마다 오랜지색 복장의 구조대원과 군 병력이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해체하며 생존자 수색작업에 한창이었다.

현지 언론은 959명의 청두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사망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진 당시 시내 중심에서 가까운 한 낡은 아파트는 통째로 무너져 40여명의 주민이 그대로 매몰됐다. /연합뉴스



중국 서남부 쓰촨성 두장현에서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무려 20여시간동안 묻혀있던 한 여성이 14일 구출돼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유관 하루만에 재가동

중국 쓰촨성 강진으로 중단됐던 현지 송유관 가동이 13일 하루만에 재개되는 등 지진으로 인한 경제피해 복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진 피해를 입은 쓰촨성을 비롯해 인근 간쑤성 및 산시성 등에 대해 안전 문제를 우려해 광산, 화학 공장과 유전 및 가스전 가동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조치와 관련해 쓰촨과 산시 및 간쑤 성들에 재연소가 밀집해있는 아연이 특히 타격받아 13일 국제 시세가 7%

폭등한 t당 2천340달러에 거래되는 초강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달 17일 이후 최고치다. 쓰촨을 포함한 이들 성에서 생산돼 재판매되는 아연은 최고 50만t으로 중국 전체 물량의 11% 가량에 달한다. 아시아 최대 석유·천연가스 기업인 페트로 차이나 관계자는 로이터에 쓰촨성에 이르는 1천240km의 송유관이 지진 후 안전 점검을 위해 중단됐으나 하루만에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 송유관을 통해 하루 평균 20만배럴의 휘발유와 디젤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 100만달러 지원

정부는 14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필요로 하는 담요와 텐트 등 구호품목과 긴급구호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하지만 당초 정부가 준비했던 구조요원의 파견은 중국 측 사정으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구조요원 41명과 의료진 20여명을 대기시켜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美 “북 제출 핵자료 완전하다”

내주초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6자회담 재개 초읽기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자료에 대해 ‘완전하다’는 1차 평가를 내리고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주 초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핵신고 문제를 완료하고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미 등은 이날 중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들어가며, 가급적 내달 초에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에 들어가 직접 자료를 들고 나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가져온 자료들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 및 핵연료재처리공장 운영과 생산에 관련된 일련의 ‘완전한’ 자료로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의 ‘완전하다’는 발언은 미국

으로 자료를 가져온 지 하루 만에,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속에 자료를 납품받았다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미국이 향후 수 주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지금의 긍정적인 기류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미국이 ‘완전하다’는 1차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핵신고의 마지막 쟁점으로 여겨지던 북·미 간 플루토늄 양의 차이가 북한이 제공한 자료로 설명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조만간 중국에 제출할 신고서에 플루토늄 생산량을 30~31kg라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추정해온 50kg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돼왔다.

미국은 앞으로 수 주간 북한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 향후 검증작업을 진행하는데 만족스러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후해 북한도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수일 내에, 곧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국이 이를 각국에 회람하는 과정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6자회담 재개 시기는 6월 초라는 예상 나오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신고서 제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아직까지 다소의 기술적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회담 재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내주 초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 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히카 아주국장과 3자 회동을 갖고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6자회담 재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北 식량지원계획 조율...수일내 발표”

미국은 수 일 내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13일 밝혔다.

손 매크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날 초 북한을 방문한 미국 정부 대표단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조율하고 있으며 “아마도 수 일 내로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크맥 대변인은 방북 대표단이 북한측과 ‘홍콩한 협의’를 했으며, 특히 이제까지 대북 식량지원의

걸림돌이 됐던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우리가 보기에 보다 개선된 식량 배분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식량 수요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미국의 지원 능력, 만족스러운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매크맥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니얼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할 실무 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며 “국무부를 통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들은 미국이 50만t의 식량을 WFP와 비정부단체(NGO)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

남북 6·15 공동행사 금강산서 개최 내달 15~16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행사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

남측위원회는 14일 백남청 상인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측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6·15 행사를 다음 달 15~1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측위 관계자는 “금강산은 남측 위원회 내부에서도 서울, 제주도와 함께 후보중 한곳으로 검토했던 장소”라며 “늦어도 15일까지 북측에 남측 회의 결과를 팩스로 통보할 계획”이며, 23일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갖고 자세한 행사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측위는 올해 행사에 금강산의 숙박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 참가 여부는 남북 당국끼리 논의할 사안”이나 “내부적으로는 남측 당국 대표자를 초청해 추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생도 수천도 문맹을 넘어 관음신협으로 오십시오.

정기예탁 최고 금리

6.56%

주거는 멀어져도 관음신협이 여러분의 멀어지지 않습니다.

기간	예금(년)	연이자율	예금100만원
1년	6.56%	6,560,000	54,657

* 1년 이상 또는 특별 예치액에 한하여 7.65%의 특별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관음신협협동조합 전화: 234-1884, 1921

니우우의 한해 20년

동풍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동풍골드레이크 회원권
계좌-입금(VIP)

동풍골드레이크 회원권
계좌-입금

골드스파&리조트

동풍골드레이크 회원권
19-26-38-57명칭

동풍골드레이크 회원권
(관동+황해지역)
19-26-38-57명칭

골드레이크빌리지

동풍골드레이크 회원권
· 51명칭 - 20세대
· 61명칭 - 4세대

전화: 234-3833-2107